KIDI
07/12/17

해외보험동향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Insurance Research Center

◈ 북미

- 브로드웨이 파업으로 인한 파업보험 관심 증가
- Ernst&Young, 2008년 미국 생명보험산업 전망 발표
- 9000여 만원의 보험료가 부과된 캐나다 운전자

◈ 유럽

- OECD, 홍수위험 연구보고서를 통해 도시별 위험순위 발표
- ILO, 게이츠 재단의 Microinsurance 지원협력 발표
- 북해를 중심으로 해상보험 보험료 인상 예상

◈ 일본

- 알리코재팬, 방카슈랑스 투입 전용 보험상품 공식 확정
- 미래아, 영국의 손해보험회사 M&A 합의

◈ 중국

- 중국 보험시장 금년 수입보험료 약 7,000억 위안 예상
- 금리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상품 판매실적
- 보감위, 자동차 강제책임보험 공청회 개최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브로드웨이 파업으로 인한 파업보험 관심 증가

o 브로드웨이 무대 담당자들과 할리우드 작가들의 파업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파업보험(Strike Insurance)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New York에서 연예산업을 대상으로 보험중개를 하는 DeWitt Stern Group의 관계자는 최근 파업보험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고 이야기함.
- 이는 지난 11월, 19일간의 브로드웨이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하루 200만 달러로 추산되면서 파업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었기 때문임.
- 특수물건을 주로 취급하는 전문보험사(Specialty Underwriter)에 의해 판매되는 파업보험은 파업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며, 노동자들과 협상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 예를 들어 브로드웨이 프로듀서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브로드웨이 인근 식당가는 가입대상이 될 수 있음.

o 다만, 파업보험은 파업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는 가입할 수 없음.

- 따라서 시장 관계자들은 파업보험에 대한 관심 증가가 파업보험시장의 확대로 연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음.
- 사람들은 노동협약을 체결하는 해에 그리고 파업 가능성이 늘어나는 때에만 파업보험에 가입하려 하며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매우 비싸지게 된다고 관계자는 이야기함.

(Insurance Journal, 12/7)

□ Ernst&Young, 2008년 미국 생명보험산업 전망 발표

o Ernst&Young Global Insurance Center에 따르면 2008년 미국의 보험산업은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적 업무 프로세스를 향상하며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도록 압박하는 규제관련 이슈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생명보험사들은 베이비붐 세대와 중산층에서의 비용효과적인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해 역량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o Ernst&Young 은 2008년 생명보험 산업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들을 제시함.

- 2008년부터 3500만에 달하는 중산층 베이비 붐 세대들의 퇴직이 현실화 될 것이며 그들은 저비용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상품에 관심이 많음. 이는 유사상품을 판매하는 타 금융산업과의 경쟁을 유발할 것임.
- 지난 5년간 보험사들은 투자상품을 다양화 해왔으며 이는 신용리스크를 증가시켰음. 이제는 이들 투자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때임.
- 보험사들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시야를 가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IT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야 할 것임.
- 보험사들의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 등에 대한 아웃소싱 의존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Solvency II의 실행은 보험사에게 상당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통적인 보험계리 실무에 있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야기함.
-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의 도입에 대한 대비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됨. 각 회사는 계획을 수립하고 사원을 교육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배당금에 대한 세금부과 및 자본이득 세율의 증가 등 세제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함. 특히 2008년 대선 이후 세제상의 많은 변화가 예상됨.

(Insurance News Net, 12/10)

□ 9000여 만원의 보험료가 부과된 캐나다 운전자

o 캐나다의 한 운전자에게 1년 자동차보험에 대해 우리나라 돈으로 9000만원이 넘는 104,566.63 캐나다 달러의 보험료가 부과되어 화제가 됨.

- 19세인 Jason Towers는 16세 때부터 운전을 해왔으며 두 번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2005년 이후 10건의 속도위반과 3건의 사고 경력을 가지고 있음.
- 캐나다에서는 2004년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조건별로 보험료가 결정되는 grid system을 시행하고 있으며, Towers는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음.
- 정부가 인터넷으로 운영하는 보험료 계산기에 Towers의 이력 정보를 입력하면 1년간의 보험료로 최고 122,727.42달러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옴.
- Towers가 찾아간 다른 보험사에서는 50,000 달러를 제시하였으나 그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운전을 포기할 뜻을 밝힘.

o 앨버타 재경부의 대변인인 Alison Gates-Kriston은 자동차 보험료 산출체계인 grid system은 운전경력, 사고이력, 유죄판결 등 세가지 요소를 기초로 계산된다고 밝힘.

- 그는 자동차 보험료가 그 사람의 운전 기록을 반영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지 말지 또는 운전을 그만두어야할지 말지의 결정은 운전자의 몫이라고 이야기함.
- 캐나다 보험국 앨버타 사무소의 Michael Debolt는 grid rule하에서 부과된 엄청난 보험료에 놀라워했으나 grid system에 보험료 상한을 두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The Edmond Journal, 12/11)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OECD, 홍수위험 연구보고서를 통해 도시별 위험순위 발표

o OECD는 환경연구보고서 “세계 도시별 미래 연안홍수 위험 노출 순위”를 통해 세계의 주요도시가 홍수방어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위험에 노출되는 인구는 현재 4천만명에서 2070년 1억 5천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힘.

o 동 보고서는 RMS(Risk Management Solution), 토목공학 및 환경연구소, Southampton 대학, 프랑스의 CIRED(국제중앙환경개발연구소)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OECD의 후원을 받아 출간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음.

- 날씨변화, 지표면 침강, 도시개발에 따라 대도시의 연안홍수에 노출된 인구는 2070년 약 1억 5천명에 달할 것으로 현재의 3배 이상이 될 것임.
- 재산과 인프라로 인한 총 위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세계 GDP의 5%인 현재 3조 달러에서 2070년 35조달러로 전세계 GDP(추정)의 9%에 달할 것임.
- 도시별로 살펴볼 때, 2070년 마이애미의 홍수위험에 따른 비용이 3.5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중국의 광저우(3.3조 달러), 뉴욕(2.1조 달러)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험산업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날씨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음.

o RMS의 관계자는 태풍 및 강풍 피해로 연안 홍수에 위험이 노출되는 재산과 인프라에 소요되는 비용이 주로 선진국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총 위험규모의 60%에 해당하는 상위 10개 도시는 모두 미국, 일본, 네덜란드 3개국에 속하는 도시라고 밝혔음.

(Insurance Journal, 12/6)

□ ILO, 게이츠 재단의 Microinsurance 지원협력 발표

o 스위스 제네바의 ILO(국제노동기구)는 개발도상국의 수천만명에 달하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기존 보험상품의 개선 촉진을 위해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파트너쉽 제휴를 맺은 것으로 발표함.

o 게이츠 재단은 3,400만 달러를 지원하여 Microinsurance Innovation Facility 창설을 도울 예정이며, ILO는 동 기구가 수많은 빈곤층 서비스 조직에 기술적인 원조와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함.

- 향후 3년간 동 기구는 반기별로 새로운 보험상품의 시범적 운영, 사람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더 나은 신상품개발 등에 대한 제안 요청과 자금 제공을 지원할 것임.
- 또한, 성공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가를 양성할 것임.

o ILO는 가뭄이나 가장의 사망이나 입원 등으로 고통받는 가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Microinsurance Innovation Facility를 통해 "2012년까지 최소한 2,500만명의 빈곤층이 추가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기부금이나 기술적 지원은 비정부기구(NGO) 등의 채널을 통해 전해질 예정이며 소비자 신용조합은 저소득자나 농촌 가정을 위한 보험 상품 개발을 시작할 계획임.
- 한편,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MicroInsurance Center에 따르면, 2006년 100개 빈곤국가내에 7천 8백만명의 마이크로인슈런스 담보와 관련해 246개의 위험인수자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

o 빈곤층 금융서비스 재단의 관계자는 "Microinsurance Innovation Facility가 빈곤층을 돕는 또 다른 활동을 촉발하길 바란다"고 전함.

(Insurance Journal, 12/10)

□ 북해를 중심으로 해상보험 보험료 인상 예상

o 해상보험시장이 전반적으로 대규모 손실을 입음에 따라 북해를 근거지로 하는 선박소유주나 북해루트로 운항하는 선박 등은 요율인상 등 보험회사들의 강경한 태도에 직면할 것임.

o 보험회사들과 브로커들은 2007년 선박클레임 규모가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북해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o 노르웨이 보험브로커인 Aon Grieg의 부사장은 “보험회사들이 선박보험의 보험료 인상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한편, Lloyd's 보험사의 해상부문 언더라이터는 “손실 전에는 시장 요율이 인하추세였는데 손실로 인해 요율이 하향추세에서 강화로 돌아섰다”라고 말함.

o 선박소유주와 사업자들은 발생손해액의 증가로 요율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해상보험은 사고건수는 안정화되는 반면, 사고당 보험금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글로벌트렌드의 영향으로 조선소의 신규선박 건조량이 증대하고 있음과 더불어 선박수리비 부담에 따라 수리비에 대한 담보는 작게 하고 신규선박 건조에 집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o 로얄 & 선얼라이언스의 한 관계자는 해상보험에서의 또 다른 문제는 숙련된 직원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실수로 저질러진 사고가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사람의 실수로 인한 클레임이 약 80%에 달하므로 직원의 자질요건이 가장 중요한 위험요소라고 밝힘.

(Gulfnews, 12/10)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알리코재팬, 방카슈랑스 투입 전용 보험상품 공식 확정

o 일본에서 영업 중인 AIG그룹의 알리코재팬은 이번 12월 22일에 완전 자유화 되는 방카슈랑스를 계기로 그동안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였던 생명보험상품과 의료보험상품을 은행에 제공할 것임을 12월 12일 발표함.

- 방카슈랑스 전용 의료보험상품도 개발이 끝나는 대로 제공할 계획이며 방카슈랑스 완전 자유화 이후 판매할 상품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알리코재팬이 처음임.
- 알리코재팬이 제공하는 상품은 ①한정 고지형 종신보험, ②수입보장보험 등 두가지 생명보험상품과 ①생존 급부금 종신 의료보험, ②한정 고지형 의료보험, ③평준지급 종신 의료보험 등 3가지 의료보험상품임.
- 의료보험상품 세가지는 모두 통신 판매 전용으로 개발한 심플한 상품으로 은행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니즈와 일치한다고 판단함.

o 이들 상품은 22일부터 지방은행 등 25~30개의 금융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으며, 완전 자유화 이후 판매 금융기관을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임.

- 또한 방카슈랑스 전용 상품으로, 계약시 보험료를 한번에 납입하는 일시납의 종신 의료보험상품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동 회사는 완전 자유화 이후 5년간 생명보험과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한 제3보험 상품의 방카슈랑스 규모가 수입보험료 기준 25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알리코재팬이 약 5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다는 계획임.

(FujiSankei Business i. 12/13)

□ 미래아, 영국의 손해보험회사 M&A 합의

o 토교해상니치도(東京海上日動)화재보험의 지주회사인 미래아홀딩스 (Millea Holdings)는 지난 14일 영국의 보험지주회사인 킬른(Kiln Ltd.)을 인수하여 완전 자회사화하는 것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 인수 금액은 4억 4200만 파운드(약 1,061억엔)로 일본 보험회사의 해외 M&A 중 최대 규모임.
- 미래아홀딩스는 영국의 로이즈 구성원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킬른의 자회사인 손해보험회사를 활용하여 로이즈의 주요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킬른은 버뮤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손해보험회사로 로이즈에서 보험인수 4위 규모의 실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재보험 등의 기업형 보험을 중심으로 2006년 말 수입보험료는 4억 2900만 파운드(1030억엔)에 이름.
- 토교해상은 일본의 보험회사로서는 미츠이스미토모(三井住友)해상화재보험에 이어 두 번째 로이즈 구성원으로 참가하게 되었음.

o M&A 절차는 미래아 산하의 토교해상이 영국의 감독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다음 버뮤다에 특별 목적 회사를 설립하여 킬른과 합병하고 킬른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다는 계획임.

- 또한 내년 3월 인수를 완료한 후에 이사의 과반수를 파견할 예정이며, 킬른의 브랜드력을 살리기 위해 회사명은 바꾸지 않을 계획임.
- 미래아는 킬른 인수로 인하여 그룹 전체이익 중 해외사업 이익을 2005년도 6%에서 2015년에는 20%~25%까지 끌어올릴 계획임.
- 일본 보험회사의 해외 M&A로는 미래아가 2005년에 브라질계 보험회사를 약 450억엔 규모에 인수한 것 외에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이 2004년 영국 아비바사의 아시아지역 손해보험 부문을 약 500억엔에 인수한바 있음.
- 일본의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들은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사망보장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의 주력 상품 시장이 침체하고 있어 일본 시장에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음.

(FujiSankei Business i. 12/15)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중국 보험시장 금년 수입보험료 약 7,000억 위안 예상

o 중국 보감위 통계자료에 따르면, 금년 10월 말 현재 중국 내 보험회사가 거두어들인 수입보험료는 총 5,800억 위안에 이르고 있으며, 연말까지 모두 7,000억 위안을 거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o 보감위 관계자는 또 현재 중국 보험시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금융업종에서 보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과거에 보험시장을 논할 때에는 수입보험료 규모로 평가했는데, 이제는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증가를 논한다."고 말해 자산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함.

o 이처럼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국민경제와 금융산업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산은 국민경제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이미 중요한 기관투자자로 자리매김 하고 있기 때문임.

- 금년 10월 말 현재 중국 보험회사 보유 자산 총액은 2조 9천억 위안이며, 그 중 운용자산이 2조 6천억 위안으로 연초 대비 약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금년 들어 10개월 동안 거둔 자산운용수익률도 10.8%로 예년에 비해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o 참고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중국 금융업종별 시장증가율은 제 1 금융권인 은행업이 30.9%, 보험업이 66.5%, 증권업이 200.5%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중국증권보, 12/11)

□ 금리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상품 판매실적

o 또 다시 중앙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가입자들의 선택 역시 금리에 따라 배당금이 오르는 보험상품으로 이동하고 있음.

o 최근 중국 보험가입자의 수요는 대다수 대형 생보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만능보험(유니버설보험)에 몰리고 있음,

- 만능보험은 투자수익률 보장(보감위 규정에 따르면 보험상품의 투자수익률 최저 한도는 2.5%임)과 금리인상에 따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수시인출이 가능한 보험상품임.
- 또한, 만능보험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구좌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결정되며 투자수익률은 매월 결정되는 실제 결산 이자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됨.
-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적지 않은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최저보장이율을 정하고 이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연동시켜 적용하고 있는 것임.

o 최근 중국인민은행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만능보험의 실질 수익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보험회사의 상품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태평양애트나가 판매하고 있는 만능형 보험상품은 연초 수익률이 3.5%였으나 금년 8월에는 5%로까지 급등하기도 했음.

o 한편, 보험회사의 만능형 보험상품은 은행과 달리 수익률이 변동되더라도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가서 별도의 수속을 밟지 않아도 자동 변동된다는 장점이 있음.

(남방도시보, 11/29)

□ 보감위, 자동차 강제책임보험 공청회 개최

o 지난 12월 14일 오후 중국 보감위는 자동차 강제책임보험 요율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보감위는 공청회 개최 목적을 '보험료 인하, 보장금액 상향조정'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음.

o 공청회 결과, 보감위는 현행 자동차 강제책임보험 보장금액을 6만 위안에서 12만 위안(사망보험금 11만 위안 + 의료비용 8,000위안 + 재산손실보상 2,000위안)으로 상향조정하고, 보험료는 현재 요율을 기초로 차량 종류에 따라 최저 5%, 최고 39%까지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보험료가 인하되면 현재 강제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64%가 약 10%정도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보험료 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청문회는 보감위가 민의를 반영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한 최초의 선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며 보장금액을 12만 위안으로 상향조정 한 것에 대한 차주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남.

- 일부는 상향 조정 되더라도 여전히 충분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일부는 차량사고를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보장금액 상향조정은 의미가 없으며 중요한 것은 개인 차주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o 한편, 이번 공청회는 약 5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공증인 4명, 공청회 신청자 8명, 공청회 대표 22명, 방청객 15명을 포함 총 5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음.

(중국증권보, 11/29)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6년말	07.11.30(금)	07.12.7(금)	07.12.14(금)	전주대비
금리 (%)	韓 국고채(3년)	4.92	5.77	6.11	5.89	-0.22
	美 10년국채	4.71	4.38	4.11	4.24	+0.13
	英 10년국채	4.73	4.64	4.64	4.79	+0.15
	日 10년국채	1.68	1.48	1.58	1.56	-0.02
주가	韓 KOSPI	1,434.46	1,906.00	1,934.32	1,895.05	-2.03%
	韓 KOSDAQ	606.15	741.84	747.65	725.53	-2.96%
	美 DJIA	12,463.15	13,371.72	13,625.58	13,339.85	-2.10%
	美 Nasdaq	2,415.29	2,660.96	2,706.16	2,635.74	-2.60%
	英 FTSE	6,240.90	6,432.50	6,554.90	6,397.00	-2.41%
	獨 DAX	6,596.92	7,870.52	7,994.07	7,948.36	-0.57%
	佛 CAC40	5,541.76	5,670.57	5,718.75	5,605.36	-1.98%
	日 Nikkei225	17,225.83	15,680.67	15,956.37	15,514.51	-2.77%
	中 상해종합	2,675.47	4,871.77	5,091.76	5,007.91	-1.65%
	대만 가권	7,823.72	8,586.40	8,722.38	8,118.08	-6.93%
	홍콩항셍	19,964.72	28,643.61	28,842.47	27,563.64	-4.43%
환율	원/달러	929.60	929.60	922.90	924.50	+1.60
	원/100엔	781.83	846.51	828.94	823.09	-5.85
	엔/달러	118.90	110.82	111.33	112.32	+0.99
	달러/유로	1.3148	1.4759	1.4641	1.4629	-0.0012
	위안/달러	7.8135	7.3965	7.4135	7.3675	-0.0460